



작약(芍藥)



작약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로서 화초, 약용으로 재배하며 뿌리를 이용한다. 경련을 가라앉히는 진경(鎮痉)제와 이뇨(利尿)제, 항균(抗菌)제로서 효능이 탁월하다.

안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점무늬병 피해 ●●●

잎에 갈색의 원형반점이 형성되고, 병반의 가장자리는 적갈색을 띤다. 병이 진전되면 병반이 서로 융합하여 커지고 부정형으로 확대 되기도 한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장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전년도에 이병된 식물체의 잔재를 제거하여 월동한 병원균 포자에 의해 병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발생 시 등록된 적용 약제로 방제토록 한다.

녹병 피해 ●●●

처음에는 잎의 표면에 담황갈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고, 점차 커지면서 병무늬가 부정형으로 커진다. 잎 뒷면에는 가루모양의 담황색 곰팡이 포자덩어리가 형성되고, 그 위에 1~2mm길이의 둥근 기둥 모양의 흑갈색 털모양체가 형성된다. 병이 진전되면 잎의 찢어지고, 색이 변하여 잎이 일찍 떨어지거나 말라죽는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장마기 전후 건조한 시기에 발병이 시작되는데 발병 초기 등록된 적용 약제로 방제토록 한다.



흰가루병 피해 ●●●

작약의 흰가루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여 표면에 밀가루를 뿐만 아니라 놓은 듯한 병징이 생기며 심해지면 잎자루, 줄기까지 발생이 확대된다. 비교적 고온이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병발생이 심한데 주로 장마기에 전염이 되며, 장마 후 온도가 높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상당한 발병을 보인다. 재배년수가 증가할수록 병발생이 심해지므로 발생초기 등록약제로 방제하고 병든 잎이나 식물체 전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 발생이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탄저병 피해 ●●●



잎에 발생하며, 원형 내지 타원형의 갈색 병반을 형성한다. 병이 진전되면 병반이 서로 융합되어 커지고, 잎이 말라죽는다. 전염원의 특성상 빗물에 용해되어 물과 함께 이동되어 토양표면에 존재하다가 빗방울 등에 의해 지상부로 전염이 되므로 장마철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병이 심하다. 발생 초기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고 병든 잎이나 식물체 전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 발생이 확대 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선충류 피해 ●●●

작약은 황기와 더불어 선충류에 의한 피해가 심한 작물로 작약을 기주로 하는 선충류는 당근뿌리혹선충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종 이상이 보고되어 있다. 주로 연작재배 시 밀도가 늘어나 피해가 증가하며 뿌리 속에서 생활하므로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저해되어 생장이 부진해지고 피해 받은 뿌리는 수많은 혹이 생기거나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상품성이 저하되게 된다. 가급적 선충의 이동성이 좋은 사질토에서의 재배를 피하며 이전 작물에서 선충류의 피해가 있었던 밭은 피하도록 한다. 휴경하면서 심경을 해주면 표토충에 주로 서식하는 선충의 밀도가 감소되어 추후 작약 재배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